

# 거룩한 읽기,

## 기독교세계관과 묵상

이춘성 (한국라브리공동체 간사)



“대혁명이란 성서를 읽는 운동입니다.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성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성서를 읽고, 성서를 번역하고, 그리고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이렇게 하여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책을 읽는 것, 그것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반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p.70)

위의 내용은 일본의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가 그의 책 『잘라라, 기도하는 그 손을』에서 종교개혁을 평가한 것입니다. 일반 철학자인 사사키 아타루는 종교개혁이 성경을 읽고, 본래의 의미를 찾는 운동에서 시작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아타루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사 학자들이 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그가 로마서를 접하고 읽은 과거 시점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철학자 사사키 아타루는 이에서 더 나아가 책을 바르게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대단한 일인가에 집중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읽기는 유럽이 수백 년간 지켜온 견고한 중세의 세계관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대변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이러한 읽기혁명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미 주장하고 증명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창 1:3). 창세기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되었음을 기록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요 1: 1~14)는 하나님과 말씀의 관계성을 인간에게 알려 줍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나에 대해서는 신학적 이견들이 있겠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성경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바르게 보는 참된 세계관을 얻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세계관을 결코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세상은 우리를 혁명가처럼 받아들이고 박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성경읽기의 한 방법론인 묵상에 대해 논하고,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세계관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려 합니다.

### 바른 성경읽기가 묵상이다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성경적인 묵상은 바른 성경읽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묵상은 시편 1편 2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사용하는 '묵상'이라는 단어에 기인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묵상'이란 “낮은 소리로 읽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24절, 143편 5절에서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이 단어는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이 큰 소리나 슬픔에 흐느끼는 작은 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상황에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같은 소리를 반복해서 내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묵상이란 단어는 성경을 읽는 것이며, 동시에 반복해서 계속 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묵상이 기독교가 오래 전부터 실천해 온 바른 성경읽기 방법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1973년에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Knowing God) 첫 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묵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모름으로 해서 통탄할 만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성경묵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사역과 도(way) 그리고 목적과 약속들에 대해서 자신이 아는 여러 가지 것을 상기하고 (calling to mind), 숙고하고(thinking over), 깊이 생



각해 보고(dwelling on), 적용하는(apply to one-self) 활동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서,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an activity of holy thought)이다.”(p.23) 여기서 우리는 패커가 목상을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고의 활동이고, 둘째는 행함의 활동입니다. 즉, 목상이란 단지 성경을 읽고 정보를 취하는 활동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인간과 소통하고자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작업이며,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전자는 바른 읽기이며 후자는 바른 읽기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수 1:18).

#### 바른 성경읽기와 목상이란?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길로서의 성경목상을 이야기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목상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목상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70년대 중반 성서유니온이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 후로 많은 단체들이 성경목상을 보급하기 위해 관련 프로그램과 책자들을 만들었고,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경건생활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장려해 왔습니다.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바른 성경읽기에 고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만 수정한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이 바른 성경읽기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성경읽기와 목상 습관에서 가장 미숙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중 두 가지만 언급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이러한 진단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에 이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리라 봅니다.)

첫 번째, 한국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성경읽기와 목상은 사고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사고의 과정이

무시된 성경읽기가 얼마나 비상식적인 결과를 초래하며, 성경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지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전 전라남도에서 한 목회자 부부가 세 자녀를 죽이고 시신을 방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구약의 잠언 23장 13-14절 “아이를 혼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의 구절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인 박씨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사심에서 하나 감한 때를 다섯 번 맞았으며”라는 성경 구절에 근거하여 아이들을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는 상식적인 사고(thought)의 과정이 없이 신비적인 방법에만 성경을 읽고 해석한 참혹한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정당한 사고의 과정을 무시하는 성경읽기와 목상이 자연스럽게 한국 기독교인들의 삶에 자리잡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저는 한국인들의 전통 종교인 무교(무속종교)의 세계관을 꼽고 싶습니다. 무교의 사면인 무당은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춤과 노래를 통해 무아의 지경에 이르러 접신을 통해 다른 인격체에 조종당합니다. 이때 무당의 사고 과정과 이성의 활동은 중단되고 알 수 없는 초월적 힘을 경험함으로써 무당은 저승으로부터의 이승을 향한 뜻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이러한 무교적 의사소통 방법은 인간의 사고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신과 소통하는 방법은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유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때, 사고의 과정보다는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감정이나 머릿속에 지나가는 심상과 단어, 문장으로 성경을 깨달았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무교가 성경읽기와 목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무교가 추구하는 근본 세계관 때문입니다. 정수복은 『한국인의 문화적 문법』에서 무교는 저승보다 이승이 더 좋은 세상이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무교는 현세적 물질주의를 강화시켜서, 영적인 것보다는 개인이나 단체의 욕망의 실현이 중요하며,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현세의 행복에 대한 추구를 강화한다고 지적합니다(p.310). 이것은 무교가 직관적인 종교적 체험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보여줍니다. 무교는 초월을 빙자하여 인간의 현세적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사고 활동이 없는 직관적이고 체험적인 성경읽기와 목상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국의 기독교가 현세 중심적인 기복 신앙이라고 비판합니다. 그리고 현 기독교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향했던 목적이 현세 중심적이며, 인간 중심적이었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포장하나, 결국 깊숙한 곳에 숨겨진 악한 의도가 그 본색을 드러낸 것이 아닐까요.

타락한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취하고 불리한 것은 무시하거나 왜곡시켜 스스로를 선의의 사람으로 가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런 인간들은 진리에 눈을 감아버리고도 일말의 죄책감마저 느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깊은 사고 활동은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진리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진리를 찾고자 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고 활동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상은 의식적으로 수행하는 거룩한 사고 활동이다.”

둘째로 저는 적용 중심적이며 실용적인 성경읽기와 목상 방법들이 바른 성경읽기와 목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와 복잡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를 불안하게 하는 주된 원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비교적 변화에 둔감한 시

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란 새로운 만남이 많지 않고, 도시와 떨어져 있어 사회에 대해서도 다소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최근까지 TV도 없었으니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골 생활에도 인간관계나 계절의 변화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물며 복잡한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이러한 사회 속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왜?”(Why?)나 “무엇?”(What?)라는 질문보다는 실용적인 “어떻게?”(How?)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지리하고 따분한 해석의 과정은 건너뛰고, 즉각적인 적용 중심의 성경읽기와 목상이 성도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각종 성경읽기 잡지들은 독자들이 해석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을 제공해 주며 심지어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의 유치원 수준의 교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성경을 실용적으로 전락시키는 잘못을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왜”나 “무엇”을 질문하는 것은 성경의 본래의 뜻을 찾는 과정이며, 해석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이 과정을 전문가들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우리의 현실과는 별로 연관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우리의 현실에 무관심하지 않으며, 해석의 과정도 전문가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혼, 자녀교육, 인간관계, 가족생활, 직장생활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 어느 직장에 가야 할지, 부모님 생일 선물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자유인으로서 이러한 삶의 여러 문제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이를 기독교세계관이라고도 하지요. 성경은 이러한 삶의 근본 가치를 형성하여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를 통해 성도가 취해야 할 바른 세계관이 무엇인지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정에 성도가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면, 성경의 지식은 성도 개인에게 인격적인 지식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읽기와 묵상을 할 때, 공장 적용으로 넘어가거나 교재에만 의존하지 않고 해석의 작업에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주시고 자하는 바른 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어떻게”의 문제를 자유인인 우리가 거러잡고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17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

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바울은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자’의 의미를 전후 문맥을 통해 확인해 보면, 이미 완성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들이 실제 삶과 직용이 완벽한 자들이어서 온전한 자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삶이 온전한 방향을 향하고 있기에 온전한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받은 디모데와 교회처럼 당장 나의 필요에 따라 성경을 읽기보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해석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성경읽기와 묵상이 회복해야 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논한 내용을 볼 때, 현대 한국 기독교인들이 회복해야 할 바른 성경읽기와 묵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언급했듯이, 먼저 무속적 영향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사고의 과정을 중요시 하는 성경읽기와 묵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고 과정의 회복은 자연스럽게 현재 지향적인 성경읽기와 묵상에서 벗어나 내세와 현세를 통합하는 -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엡 1: 10)- 진정한 초월적 신앙의 회복으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둘째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해석의 과정에 참여 하도록 격려하고, 해석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성경연구 방법을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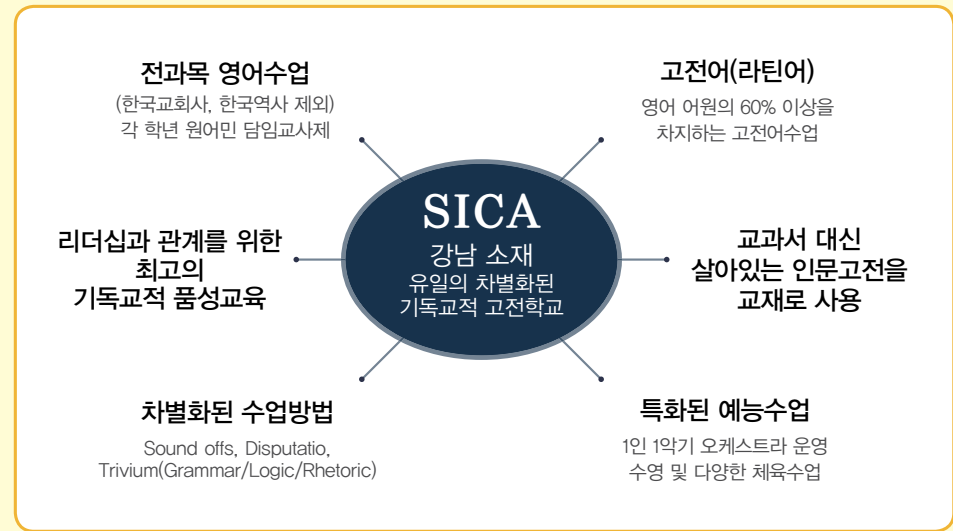
이준성 전북대학교 고분자공학과 졸업하고 한국 및 영국의 라브리공동체에서 수학하였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M.Div.)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분당소방교회, 대예교회 청년부 전담사역을 하였으며 현재 한국라브리 간사로 섬기고 있다.

# Love to learn, Love to think, Love to God!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는  
기독교적 고전교육(Classical and Christ-centered  
Education)을 지향하는 국제학교입니다.

## 2013학년도 신입생 수시 및 정시 입학

Senior Kindergarten(유치원생)/Grammar Level(초등학교 1-4학년)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363번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3번 출구에서 도보로 10분



서울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  
Seoul International Christian Academy

문의 | 02.557.7710  
sicacademy@dcty.co.kr  
www.sicacademy.org